

# 國語教育科의 현황과 과제

陳 泰 夏

(明知大 國語教育科)

## 1. 沿革과 教育目標

우리나라에서 '國語教育科'라는 명칭의 학과는 1962년 12월 31일, 閣令 제 1133호에 의거하여 서울대 사범대학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그후 각 대학에서 국어교육과를 설치하여 현재(1991) 전국 135개 대학 중 30개 대학에 국어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 창설 역사는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0년 내지 20년 내의 이다.

이들 30개 대학 중에는 師範系大學의 국어교육과(한국어교육과 포함)와 非師範系大學 국어국문학과와 교직과정과 教育大學院의 국어교육전공과정 등이 중등학교의 국어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포함시켰다. 이밖에 教育大學에 심화과정으로서 國語科 教育專攻이 있으나, [이것은 국어교사만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국민 기초교육의 학문적 심화를 위해 설치된 과정이며, 현재 국민학교에는 '국어과 교사'라는 교과 전담교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대학에서의 심화과정은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학과의 명칭이 '國語教育學科'가 아닌 '國語教育科'로 명명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 기인하였을 것이다. 첫째, 본 학과의 설치

당시에는 교과교육학으로서의 '國語教育學'에 대한 필요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국어교육과는 國語學이나 國文學이 연구해 낸 결과 중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만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國語教師를 양성하는 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당시 각 師範大學에 설치되어 있는 교과교육 전공학과들의 公式名稱이 '○○교육학과'가 아닌 '○○교육과'이었으므로 이에 획일적인 통일을 기하였을 것이다. 셋째, 일선학교의 많은 교과 중 하나인 국어과와 그 명칭을 편의상 일치시키려 하였을 것이다.

이제라도 國語教育學의 정립과 더불어 학과 명칭도 '國語教育科'에서 '國語教育學科'로 개칭되어야 할 것이다.

教育法 제 118조에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각 師範大學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항목의 教育目標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은 '유능한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점에서 볼 때, 師範大學에 속하는 國語教育科의 주된 教育目標은 유능한 國語科 教師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몇몇 대학에서 국어교육과를 소개하는 문안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육은 국민교육의 기본이다. 국어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을 터득하여 올바른 국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 및 국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본 학과의 교육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어학·문학 등 국어국문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탐구, 그리고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훈련한다. 본 학과에서는 국어교육에 뜻을 두고 혼용한 국어교사로서 교육의 일선에 서고자 하는 학생으로 지조있고 재능있는 사람을 요구한다. 창작이나 기타 특정한 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방법과 기술을 교수·지도하는 곳이 아니므로 오로지 이 방면에 전념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학과에서 요구하는 최적적자가 될 수 없다”(『서울대학교 요람』, 1990).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어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체득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교육시키는 데는 상당한 기술과 소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는 국어학과 국문학의 기본으로부터 더 심화된 고등어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국어기능을 체득함으로써 올바른 언어·문학관을 구비한 유능한 국어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현행 중등학교 국어교사의 대다수가 사범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대학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 국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미숙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때, 국어교육을 담당할 전문인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학과의 사명과 역할을 늘 것으로 기대된다”(『한양대학교 요람』, 1990).

예로 든 두 대학 國語教育科의 개설과 목표를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하지는 않지만, 국어교육과는 중등학교 國語科 敎師 養成을 주된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학과로서 국어국문학자나 文人의 양성을 목표로 삼는 국어국문학과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2. 전국 대학 國語教育科의 教育課程 比較分析과 問題點

국어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30개 대학 가운데 국·공립대학(교)이 12개 교이고, 사립대학(교)이 18개 교이며, 총 입학정원은 1,075명이다. 30개 대학 중 동일대학 내에 國語教育科와

國語國文學科가 병설되어 있는 대학은 26개 교이다(〈표 1〉 참조).

〈표 1〉 전국 대학의 국어교육과 현황

국·공립대		사 립 대	
학 교 명	정원	학 교 명	정원
*강 원 대	30	*경 남 대	50
*경 북 대	40	*고 려 대	60
*경 상 대	30	*관 동 대	40
공 주 대	35	*대 구 대	70
*부 산 대	30	*동 국 대	40
*서 울 대	35	*목 율 대	30
순 천 대	20	*부산여대	30
*전 남 대	20	*상명여대	40
*전 북 대	20	*서 원 대	40
*제 주 대	20	*영 남 대	30
*충 북 대	25	*원 광 대	40
교 원 대	40	*인 하,대	40
		*전 주 대	50
		*조 선 대	30
		한국외대	30
		*한 남 대	40
		*한 양 대	30
		*홍 익 대	40
소 계	345	소 계	730
총 계			1,075

\*표는 국어국문학과가 병설되어 있는 대학

이들 대학 중 대부분이 敎育大學院의 석사과정에 국어교육 전공과정을 설치하고 있고, 서울대와 한국교원대에는 교육대학원이 아닌 一般大學院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國語敎育 專攻課程을 설치하고 있다.

한편, 학부에는 국어교육과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면서 교육대학원의 碩士課程에만 국어교육 전공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도 상당수에 이른다. 건국대, 경희대, 경원대, 계명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수원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충남대 등이 이에 속한다.

우선 국어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30개 대학의 敎育課程에서 전공과목(교양기초·교양필수·계열기초·계열교양·전공필수·전공선택 등으로 표시된 과목 중 국어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표 2〉 국어교육과 교육과정의 분야별 분포

(전공필수 과목 수)

학 교 명	분				야		
	국 어 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한 문 학	국어교육	기 타	계
강 원 대	10(3)	9(2)	8(2)	1(0)	3(3)	11(0)	42(10)
경 북 대	15(4)	7(2)	9(4)	2(0)	1(0)	2(0)	36(10)
경 상 대	4(0)	2(0)	4(0)	1(0)	16(8)	1(1)	28( 9)
공 주 대	6(4)	4(0)	4(1)	1(0)	1(1)	—	16( 6)
부 산 대	13(4)	10(4)	10(4)	3(1)	5(5)	2(0)	43(18)
서 울 대	5(3)	6(1)	8(2)	—	11(2)	2(1)	32( 9)
순 천 대	12(4)	8(2)	5(2)	2(0)	4(3)	5(1)	36(12)
진 남 대	9(4)	8(4)	8(4)	1(0)	3(2)	5(1)	34(15)
진 북 대	10(3)	12(4)	6(2)	2(0)	6(3)	2(0)	38(12)
계 주 대	10(4)	10(3)	13(4)	2(0)	—	—	35(11)
충 북 대	10(4)	9(2)	9(3)	2(1)	3(3)	1(0)	34(13)
한 국 교 원 대	10(3)	8(3)	9(2)	2(1)	6(3)	1(0)	36(12)
경 남 대	5(2)	5(2)	6(2)	1(0)	8(3)	1(1)	26(10)
고 려 대	8(1)	13(1)	10(0)	2(0)	7(3)	2(0)	42( 5)
관 동 대	7(3)	8(2)	9(3)	1(0)	2(0)	—	27( 8)
대 구 대	14(6)	13(4)	12(4)	3(0)	—	2(0)	44(14)
동 국 대	8(2)	10(2)	7(2)	1(0)	5(2)	1(0)	32( 8)
목 원 대	11(3)	13(2)	10(1)	3(1)	2(0)	1(0)	40( 7)
부 산 여 대	9(3)	8(2)	6(2)	3(1)	—	2(0)	28( 8)
상 명 여 대	8(4)	8(3)	8(3)	2(0)	—	—	26(10)
서 원 대	8(2)	8(1)	8(2)	2(0)	—	2(0)	28( 5)
영 남 대	7(3)	5(1)	7(3)	1(0)	2(1)	1(0)	23( 8)
원 광 대	8(3)	8(1)	5(2)	2(0)	3(0)	1(0)	27( 6)
인 하 대	10(2)	7(2)	7(2)	1(0)	9(2)	1(0)	35( 8)
전 주 대	9(3)	5(0)	7(3)	—	5(3)	1(0)	27( 9)
조 선 대	8(2)	8(2)	10(3)	1(0)	—	2(0)	29( 7)
한 국 외 대	8(7)	9(6)	4(4)	3(3)	3(2)	—	27(22)
한 양 대	8(3)	10(3)	7(3)	1(0)	1(1)	—	27(10)
홍 익 대	10(3)	11(2)	8(2)	2(0)	1(1)	—	32( 8)

있는 과목의 통칭)을 편입상 국어학·현대문학·고전문학·한문학·국어교육학·기타 분야로 나누어 그 분포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 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이 국어국문학과와의 교육과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개설된 교과목의 설치 빈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위하여 30개 대학의 國語教育科에서 과연 국어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개설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본 결과 뒤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3〉 개설교과의 빈도 비교

(전공필수인 학과 수)

교 과 명	국어국문학과 [50개교]	국어교육과 [30개교]
국어학개론	45(43)	28(26)
국어사	48(29)	29(16)
국어음운론	46(15)	27( 9)
국어의미론	40( 2)	24( 2)
국어문법론	38(23)	19(14)
국어학강독	33( 7)	30( 5)
중세국어문법	17( 2)	19( 4)
국어학사	39( 8)	18( 4)
국어방언론	29( 1)	10( 1)

교과명	국어·국문학과 [50개교]	국어교육과 [30개교]
현대문학사	48(15)	28(23)
한국현대시론	36(16)	27(10)
한국현대소설론	41(17)	27(8)
한국문학비평론	47(3)	28(5)
문예사조론	33(4)	16(2)
국문학개론	43(42)	26(24)
고전문학사	48(39)	29(25)
고전시가론	50(7)	19(6)
고전소설론	45(12)	25(4)
구비문학론	38(2)	18(1)
고전문학강독	16(3)	15(5)
한문강독	29(4)	27(9)

〈표 4〉 대학별 국어교육 관련교과 개설현황

학교명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계열공통, 기초필수)
강원대	국어교육론 국어지도법 국어교재연구		
경북대		국문학교재연구	
경상대	국어교육원리 언어교육론 문학교육론 국어교제론 말하기지도론 짓기지도론 읽기지도론	음운지도론 문법지도론 어휘지도론 시지도론 소설지도론 수필지도론 회곡지도론 의미지도론 국어교육세미나	
공주대			국어교육과 교육론
부산대		독서교육론 문법교육론	국어교육론 국어과교제 연구 국어과지도법
서울대	국어교육론 문법교육론 국어교제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분 국어화법 언어학습론 국어교정음운론 문학과 문학 교육 언어교육강독 언어학과 언어 교육	

학교명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직 (계열공통, 기초필수)
		문학교육강독 국어교육연습	
순천대	국어교육론 문학교육론 국어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학교문법론	
전남대	국어교육론 국어교제연구 및 지도법	학교문법	
전북대	고전문학교육론 학교문법론 현대문학교육론	국어교육론 중세문법지도 창작지도	화법지도
제주대			국어교육원리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충북대	국어과교육론 국어교제연구 국어과지도법		
한국 교원대	국어과교육론 국어과교제연구 교육국문법	국어과교수법 국어과교육연구 국어교육연습	
경남대	국어문법지도론 국어과지도법 국어과교제연구	현대수필지도법 현대소설지도법 국어교육론 한국고전시가 지도론 현대시지도법	
고려대	문법교육론 국어교육론 국어교제연구 및 지도법	현대문학교육론 고전문학교육론 독서교육론 화법교육론	
관동대		국어교육사	
동국대	국어교육론 국어교제연구 및 지도법	국어교육음성학 현대문학교육론 고전문학교육론	
목원대		국어교육연습 국어교육론	
영남대	학교문법론	문학교육론	
원광대		국어교육론 국어학교육연습 국문학교육연습	

학교명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적 (제열공통, 기초필수)
인하대	국어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	현대문학교육 작문교육 한문교육 고전문학교육 국어과평가법	
전주대	문예창작지도 소설창작지도	시창작지도 현대작품분석 지도	
한 국 외 대	한국어교육론 한국어교수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한남대		현대문학교육론 문법교육론 한문교육론 문예교육론 고전문학교육론	
한양대	문법교육론	교육학론 국어교육론	
홍익대			국어교수법

이상과 같은 분석·고찰의 결과 다음 問題點들이 나타났다.

① 교사교육의 교육과정은 教育內容에 관한 교과와 教育方法에 대한 교과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 각 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教育方法에 대한 교과, 곧 國語教育 분야가 매우 빈약하다. 30개 대학 중 2개 대학(서울대, 경상대)을 제외한(대부분 대학의 26~44개 교과 가운데 10% 정도만 국어교육 관련교과이고, 90% 정도가 국어국문학 또는 漢文學에 관련된 교과이다. 다시 말해서 國語教育科의 근본적인 실험목적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다만 名稱만을 적당히 붙여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다.

② 대학 간의 분야별 設講 상황이 不均衡하다. 총 44개의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다만 16개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있다. 또한 전공필수 과목을 22개나 설강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5개밖에 안 되는 대학도 있다. 분야별로 보면, 國語學 분야의 경우 4~15개 교과가 개설되어 있고, 이중 전공필수 과목은 0~7개이다. 現代文學의 경우는 2~13개 교과에 전

공필수로는 0~6개가 개설되어 있다. 古典文學의 경우는 4~13개 교과가 개설되어 있고, 전공필수 과목은 0~4개이다. 漢文學의 경우 개설된 과목과 전공필수 과목은 0~3개이다. 國語教育의 경우는 0~16개 교과가 개설되어 있고, 전공필수 교과는 0~8개이다. 이처럼 大學別 또는 分野別로 설강 과목의 분포가 불균형한 이유는 미리 체계적으로 배정된 敎育課程에 의하여 교수초빙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전임교수진의 전공영역에 따라 교과목을 안배한 결과일 것이다.

③ 국어교육과의 주요 교과목이 되어야 할 국어교육 분야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專攻 必須 科目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학이 적지 않다. 이는 國語教育科의 專攻을 국어교육 분야보다는 國語國文學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논리를 부정하기 어렵다. 대학에 따라서는 '국어교육과'라는 학과명이 부끄러울 정도로 국어과 교육학 과목의 개설이 전무한 대학도 있다.

### 3. 敎授 현황과 卒業生 실태

#### 1) 敎授 現況

각 대학 국어교육과에 의뢰한 자료 수집이 어의치 않아서, 본 자료는 1990학년도 韓國大學 敎育協議會에서 발행한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의 敎員名簿를 근거로 국어교육과 교수들의 전공별 현황을 통계낸 것이기 때문에 실제상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위의 <표 5>에서 교원명부에 명기된 '언어학'은 國語學에, '한국문학·한국사상사·민속학·한문학' 등은 古典文學에 포함시켰다. 기타 '문장작법·교양국어' 등은 그에 해당되는 敎授의 주요 발표논문을 참조하고 전공분야를 구별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교원명부 상에 專攻이 국어교육으로 명기되어 있는 교수는 극히 소수이다. 비록 전공이 國語教育은 아니더라도 사범계대학을 졸업했거나, 석·박사과정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거나, 중등학교의 국어과 교사·교육전문직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경력을 가진 교수라도 다수 있으면 國語教育科의 敎育課程을 원활

〈표 5〉 국어교육과 전공별 교수 현황

학	교	당	국어학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교육	계
강원대	원대	대	2	3	2	—	7
경북대	북대	대	2	1	2	1	6
경상대	상대	대	3	2	2	1	8
공주대	주대	대	2	3	3	—	8
부산대	산대	대	2	2	3	1	8
서울대	울대	대	2	2	2	1	7
순천대	천대	대	2	2	2	—	6
전남대	남대	대	2	2	1	1	6
전북대	북대	대	2	3	2	—	7
제주대	주대	대	3	2	3	—	8
충북대	북대	대	2	2	2	—	6
한국교원대	국교원대	대	2	2	2	2	8
경남대	남대	대	2	2	1	—	5
고려대	려대	대	2	2	2	—	6
관동대	동대	대	1	1	2	1	5
대구대	구대	대	2	2	2	—	6
동국대	국대	대	1	2	1	1	5
독원대	원대	대	1	2	1	—	4
부산여대	산여대	대	2	1	2	—	5
상명여대	명여대	대	2	2	3	—	7
서원대	원대	대	1	2	2	—	5
영남대	남대	대	1	1	2	—	4
원광대	광대	대	2	2	2	—	6
인하대	하대	대	2	2	2	—	6
전주대	주대	대	2	1	1	—	4
조선대	선대	대	2	3	2	—	7
한국외대	국외대	대	2	2	2	—	6
한남대	남대	대	1	1	2	—	4
한양대	양대	대	1	2	1	—	4
홍익대	익대	대	2	1	1	—	4

히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가 각 대학 국어교육과에 얼마나 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이상의 國語教育科 教授 현황으로 볼 때 각 대학의 국어교육과가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미 임용된 教授들의 攻에 따라 안배된 教育課程으로써 學科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모순된 教授配置를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교수들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教授構成으로는 아무리 教育課程을 개편하려 해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 2) 卒業生의 進路指導와 就業實態

국어교육과는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의 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생의 진로를 위한 특별한 지도는 오직 일선 국어과 교사로서의 資質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근래 일선 중·고등학교장들의 솔직한 토로를 들어보면, 社會的 變革에 따라 새로 임용되어 오는 教師들은 知識傳授의 면보다도 教師로서의 資質 부족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수들은 졸업생들의 취업에 앞서 일선교사로서의 資質涵養 指導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각 대학별로 국어교육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참고로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간의 졸업생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뒤의 〈표 6〉과 같다(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문회 명부, 1990 참조). 표에서 보듯이 國語教育科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일선 교사로 진출하고 있다.

또한 각 대학 國語國文學科 졸업생의 취업현황과 대비하여 보면, 國語教育科 졸업생들이 훨씬 높은 비율로 敎職에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리쿠르트』 '90년 5월호 참조). 뒤의 〈표 7〉에서 주목되는 것은 國語國文學科 졸업생의 교직 진출이 비율로 보면 國語教育科에 비하여 훨씬 낮기는 하지만, 실제 국어과 교사로 진출하는 인원은 약 595 : 509로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 대학 중 國語國文學科가 있는 대학은 총 89개 교(국·공립 16개, 사립 73개)이고, 입학정원은 총 4,340명이다. 이중 30% 이내의 학생이 敎職課程을 이수한 후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 가능한 국어과 교사는 매년 1,4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國語教育科 졸업생 1,075명을 훨씬 능가하는 숫자이다.

이런 점에서 유능한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國語教育科의 제반 문제를 혁신해야 함은 물론, 이에 준하는 國語國文學科의 敎職課程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세신이 필요하다.

〈표 6〉 서울사대 국어교육과 졸업생 취업 현황

연도 졸업생수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24	28	26	38	41	39	43	48	52	28
교	직	19	17	15	24	26	32	33	38	37	21
방	승	1	—	1	1	1	—	1	—	—	—
신	분	—	—	1	3	1	—	—	1	—	—
공	원	—	1	—	2	—	—	—	—	—	—
사	기	—	1	2	3	1	1	—	—	—	—
진	학	1	4	2	2	2	2	—	6	6	6
입	대	—	—	1	1	3	3	3	1	1	—
기	타	3	5	4	2	7	1	6	2	8	1

〈표 7〉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 졸업생 취업 현황 비교(%)

분야	학과	국어교육과 (792명)	국어국문학과 (2,976명)
일	반	10.2	35.4
국	영	0.5	1.9
금	응	1.0	7.0
연	구	0.5	1.0
언론	및 출판	2.5	15.9
공	무 원	1.7	5.1
교	직	75.1	17.1
특	수 직	0.7	1.0
자영	및 기타	7.7	15.6
진	학	1.4	5.0
군	입 대	8.2	9.5

#### 4. 敎育課程의 改善方案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아직까지 國語敎育學이 과학적 체계의 학문으로서 定立되지 않은 점과 아울러 국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 國語敎育科의 敎育課程이 지금도 國語學+國文學+敎育學이라는 진근대적인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어교육과 敎育課程의 특성은 다음의 세 영역에서 찾을 수 있다. ① 교과내의 내용을 구성하는 지식인 '內容領域', ② 교과를 실제로 가르치는 데 관련된 이론과 실제인 '敎科敎育學領域', ③ 학생의 문제와 교육 일반을 다루는 '敎育學的知識' 등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조를 이루어 미래의 敎師들에게 제시되는가 하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이 가운데 '교과교육학 영역'은 각 교과 교사 양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각 대학 국어교육과의 관심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國語敎育科의 敎育課程은 졸업생들이 교육일선에서 국어 교과를 담당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을 必須科目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과목들의 개발·운영은 결과적으로 國語敎育學的의 性格과 課題를 명확하게 밝혀 주고, 국어교육 연구방법론을 발전시키며, 國語敎育의 目標, 領域, 內容, 指導方法 등에 관한 치밀한 이론을 제공해 줄 것이다.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 國語敎育學 과목을 필수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에는 먼저 국어과 교육학 설강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내용중심 교육과정이나 교과교육중심 교육과정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즉, 內容中心의 교육과정은 方法論에 소홀할 염려가 있고, 교과교육학중심의 교육과정은 內容이 부실할 여지가 있다. 실로 내용영역에 대한 해박하고 치밀한 理解나 知識이 先行되지 않으면 교사는 效率的인 지도 방법을 기대할 수 없음을 물론, 오히려 이러한 바탕 위에서만이 교과의 特性에 맞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의 創出도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현재 각 대학 국어교육과의 바람직하지 못한 敎育課程을 國語敎育科다운 방향으로 改善을 시도한 委員의 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 專攻必須: 국어과교육개론 · 국어과교제연구 · 국어과수업의 이론과 실제 · 국어과교육의 계획과 평가 · 학교문법과 문법지도론 · 표준어의 언어교육론 · 맞춤법 및 정서법의 원리와 지도 · 국어표현지도 1 (음성언어) · 국어표현지도 2 (문자언어) · 문학교육론 · 국어교육강독 · 교육한자한문 · 국어학개론 · 국어 및 국어학의 역사 · 국문학개론 · 국문학사 · 문학원론 · 국어문자론 · 국어학연습 1 · 국어학연습 2 · 국문학작품선독 1 · 국문학작품선독 2

• 專攻選擇: 한국어교육론 ·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입문 · 문학교육 연구방법론 입문 · 국어과교제 분석개발 · 국어정책론 입문 · 국어교육사 · 국어과 장학 및 학사관리 입문 · 언어발달과 심리언어학 입문 ·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언어학 입문 · 대중언어와 국어통계론 · 독서지도론 · 한자한문교육론

이 試案에서는 전공필수 22개 과목 중 국어학개론 · 국문학개론 · 국어 및 국어학의 역사 · 국문학사 · 문학원론 · 국어문자론 · 국어학연습 1 · 국어학연습 2 · 국문학작품선독 1 · 국문학작품선독 2 등 10개 과목만 內容領域의 교과로 설정하고, 전공선택 12개 과목 전부와 전공필수 12개 과목을 國語教育學 영역의 과목으로 설정하였다.

박영목도 국어교육과 졸업생이 학교 현장에 나가서 국어교육을 담당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과목들로 국어교육론 · 국어표현론 · 국어어해론 · 국어교육평가론 · 말하기 듣기 지도법 · 읽기 지도법 · 쓰기 지도법 · 문학작품 지도법 · 문법 지도법 등을 國語教育科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위의 試案이 理想的인 것이라고 말한 수는 없으나,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있어서 國語國文學科와는 다른 國語教育科에 있어서 마땅히 설정해야 할 핵심 교과목들이면서도 지금까지 누락되거나 소홀히 취급되었던 맹점을 개선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어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 명칭만을 유지하고 있는 각 대학 國語教育科의 전근대적인 敎育課程을 革新하여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다운 방향과 내용을 갖추고 先進 국어과 敎師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문의 基本이며 未來人材 양성의 基礎인 國語敎育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각 대학에서 이를 조속히 자발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교육행정 당국에서라도 國語敎育科의 敎育課程에 대한 改革的인 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리야 할 것이다. ▣

1) 윤희원, “중등학교 국어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계대학 국어교육과의 커리큘럼 구상”, 『국어교육』, 1985, pp. 51~52.

2) 박영목, “국어교육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대 학술세미나, 1990.